

“고흥에서 우주인이 돼 보세요”

4~6일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

국내 유일 누리호 발사장 탐방도 달 탐사 로봇체험·우주식량 맛보기 등 내일 어린이날 특집 드론쇼도 마련

어린이날을 맞아 연휴 동안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직접 우주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4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산실인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개최된다.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누리호 발사장과 QM 발사체 보관동 견학, GST(고흥 스페이스 터미널), '우주에서의 휴가'라는 주제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나로호·누리호 실물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도 운영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우주로 가는 생생한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전시관에는 △한국형 과학탐사 로켓인 KSR-I, II, III △인공위성을 우주에 진입



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KSLV-I, II (나로호·누리호) △위성을 탑재한 페이로드 어댑터 △비행 중 대기 마찰열과 압력변화로부터 탑재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패어링 △누리호 75톤 엔진 △누리호 2차 발사 때 쏘아 올린 성능 검증 위

성 모델도 함께 전시되며,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모형도 제작 전시해 우주로의 꿈을 선보이게 된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카이스트에서 참여하는 증강현실 달 표면 체험 △태양계 8개 행성으로 꾸며지는 지구 밖 우주로 가는 유일한 플랫폼 우주 터미널 △태양계에서 우주인을 만나 달과 행성을 여행하는 미디어아트 등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우주인 카니발 △카이스트 달 탐사 로봇 시연 등 35종의 우주과학 체험 △더 마트 외계인 쇼 등 행사도 마련돼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간 '2024 고흥 어린이날 큰잔치'도 함께 열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직거래장터 등 판매 부스 및 우주 맛집·푸드트럭 부스도 운영돼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어린이날 행사 부스에서는 행사 기간 내내 페이스페인팅, 모자 만들기, 음료 나눔 행사를 하며, 어린이날 당일에는 우주항공 부스 체험 후 참여자에게 소정의 어린이날 선물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린이날 특집 드론쇼도 진행된다. 4일 오후 9시 녹동항 드론쇼는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로보가 폴리'를 주제로 밤하늘

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화려한 조명의 불새쇼는 물론 녹동 바다정원 내에 '미니RC카 조종 체험존'도 마련된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 4월 한 달 간 온라인을 통해 '고흥 우주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지난 달 30일 기준, 생활 속 우주기술 아이디어 제안서 140여 건이 접수됐다.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평가단 심사를 거쳐 6개 작품이 선정되며, 축제 기간 관광객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이 축제장을 방문하면, 지역 특산물 꾸러미도 증정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래의 자산인 우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준비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유자골 고흥한우’ 싼값에 사세요”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 전 품목 20% 할인·시식

고흥군은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맞아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간 나로우주센터 축제장에서 유자골 고흥한우 시식회와 할인판매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육을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기간 매일 오전과 오후 총 2회씩 시식회도 함께 할 계획이다.

유자골 고흥한우는 지난해 한국종축개발협회 우량암소 보유 전국 5위와 축산물 품질평가원 판정 도체등급 1++이상 35%

를 차지하는 등 전국 2위의 대한민국 최고 급육이다.

군의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파워브랜드 육성은 민선 8기 핵심 시책사업으로 지난해 4월 브랜드사업단을 구성, 법인을 설립하고 5월부터 335두의 우량한우를 선별 유통했다. 올해는 800두를 목표로 공격적인 브랜드 홍보에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고흥우주항공축제를 통해 고흥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외 진출을 통해서 '유자골 고흥한우'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공영민(가운데) 고흥군수가 지난 1일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고흥군 제공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 한마음”

제46회 고흥읍민의 날 기념식

고흥군 고흥읍은 지난 1일 고흥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이장, 부녀회장, 향우회장 (이태형 재경향우회장, 노석태 재여향우회장, 구연자 재부향우회장)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고흥읍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에 뜻을 모았다.

이날 기념식은 제46회 고흥읍민의 날을 맞아 고흥군의 중심지로서 고흥읍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또 읍정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인 유공자 3명 (지역발전부문 송정석, 사회복지부문 김인자, 경로효친부문 류제홍)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읍민과 향우들이 함께해 화합과 결의를 다지며, 올해 46회를 맞는 고흥읍민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리 고흥은 군민이 통합된 바탕 위에서 고흥의 변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올해부터는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축하 선물

SM그룹, 스마트 TV 기탁 장려금 등 1억5000만원 지원

고흥군은 남양면의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1일 세쌍둥이 가정을 방문해 65인치 스마트 TV와 출산 축하 꾸러미, 청년 부부 아이 안심용품 등을 축하 선물로 건넸다.

올해 1월 태어난 세쌍둥이는 남아 1명, 여아 2명으로 현재 산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날 지난 2019년부터 출산 가정에 지급해 온 미역, 김, 소고기, 쌀, 고흥사랑상품권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가 전달됐다.

함께 전달된 65인치 스마트 TV는 지난 달 18일 SM그룹(우오현 회장, 고흥군 풍양면 출신)에서 고흥군 출산가정을 위해 기탁한 제품으로, 남양면 세쌍둥이 가정이 1호 선물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영민 군수는 "저출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사스러운 세쌍둥이 출산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세쌍둥이 모두 고흥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쌍둥이 출산가정에는 국가에서 주는 현금성 지원금을 포함한 고흥군의 출산장려금 3240만원, 산모 건강 회복비 190만원, 돌맞이 축하금 150만원, 쌍둥이 행복 축하금 50만원 등을 지원해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 돌봄 어린이집, 조손 놀이방을 운영 중이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군에서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돌봄을 위한 시책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양가람 기자